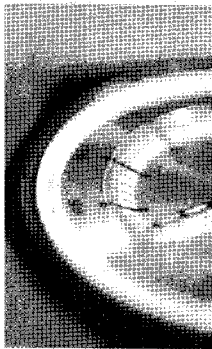




특집 www.kcca.or.kr



골판지상자 납품가격을 올려주세요

골판지포장·물류지 2010. 3·4월호에서「최근 골판지포장업계 경영환경과 대책」을 주제로 골판지 포장산업에서의 원료부족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한 제안을 하였다. 최근 들어 원자재의 부족현상은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고 이로 인해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통을 분담하지는 차원에서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원자재가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래단절, 장기계약 등으로 일부대기업자들은 인상을 거부하면서 대·중소기업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작금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납품단가 인상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경영환경을 요약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방안을 알아보려고 한다.

1. 원자재 인상요인 요약(2010. 3·4월호 특집기사 참조)

지난해에는 원화까지 하락에 따른 파지와 골판지 원지의 약 20만 톤이 해외를 유출되면서 생산차질이 속출되었다. 또한 지난 연말부터 폭설과 강추위는 폐지수거를 전담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거동을 제한하여 폐지회수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2009. 9월 120원하던 폐지가격이 2010. 4월 현재 210원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악재조건에서 얹친 데 덮친 격으로 칠레 강진은 골판지포장업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칠레로부터 가장 많은 펄프를 공급받아 왔는데 칠레 강진의 여파로 펄프 및 제지공장의 조업이 일부 중단되었으며, 2010. 1월 USD 620\$하던 UKP가 현재는 USD 840\$에 거래는 되고 있으나 이마저 현금을 들고도 못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원가인상지수

구분	2009. 6	2009. 9	2010. 3	2010. 4
골심지가격(\$120)(천원/톤)	300	355	460	460
적정골판지상자가격(원/m ²)	500	560	680	680
C대기업자 (%)	100.0	100.0	100.0	100.0

주1. 골판지상자가격은 이중양면 1종 0201형 원/m²기준으로 하는 일반적 상자가격임

원자재 인상요인 등으로 인하여 골판지상자의 원료인 골판지원지 가격이 전년 9월 대비 약 50% 이상 인상(09년 9월 20%, 10년 3월 30%)되어 이를 즉각 반영치 못할 경우 골판지포장기업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반적인 이중양면골판지상자만 기준할 경우에도 약 36%가량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이를 상자가격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기업자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3월 인상 시에도 납품단가 연동반영을 거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납품되는 골판지상자가격은 원자재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지난 3월 원지가격 인상에 이은 국제펄프가격 폭등영향으로 일부 지종의 경우 추가인상을 통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늦어도 4월부터 30%수준의 인상이 강력히 요구된다.

3. 원가인상에 따른 골판지상자의 가격인상 요청 경위

원자재의 인상요인을 근거로 원가이하로 납품해 왔던 골판지상자가격에 대해 근거자료를 첨부하며 대기업자인 원사업자에게 골판지상자 가격인상을 요청해왔으나, 골판지상자 제조업은 하도급관계 속에서 거래지속을 위해 원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골판지포장기업은 원사업자와의 원만한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져 조속한 시일 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계의 상생정신이 발휘되기를 기대해왔다.

특히 대부분의 음식료업체들은 일부 대기업과의 협의의 결과를 지켜본 후에 골판지상자 가격인상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골판지포장기업은 본의 아니게 그 협의 결과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한 사례를 들면

C대기업자에 납품하는 4개 골판지포장기업은 원사업자측에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게 납품하는 골판지상자가격에 대해 근거자료를 첨부하며 인상에 줄 것을 수차례 걸쳐 요구했으나, C사는 지난해 9월 1차

인상 시에도 가격을 인상해주지 않았으며 이번 3월에도 가격인상을 거절하고 거래단절, 장기계약 등으로 회유하였다.

이렇듯 중소납품업체들은 C대기업의 많은 발주량과 현금결제, 안정성 등의 이점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도 거래가 지속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최악의 거래조건에도 거래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은 C대기업자에게 하도급거래 관례상 거래지속을 위해 원사업자에

게 적극적 의사표현이 어려운 납품업체 입장을 헤아려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골판지포장업계에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최악의 경영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 대기업자와 원만한 대화 및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골판지상자 납품가격 적정화를 위해서는 하도급관련 법률에 의거 납품단가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정협의를 검토할 계획이다.

골판지포장업체 현황 신문기사

매일경제

A18

2010년 4월 26일 월요일 매일경제

골판지박스 가격 올려달라

대기업 납품단가 인상없이 공급중단도 고려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가 국내 포장용 박스 생산업체에도 미친 가운데 이들 중소기업이 대기업들 상대로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골판지포장협회등 조합은 "포장 박스 원재료인 골판지원지(골심지) 가격이 지난해 중순부터 크게 올랐으며 '하지만 이를 갖고 골판지포장 박스를 만들어도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전혀 올려주지 않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반 포장용 박스는 가운데 골심지를 중심으로 양면에 표면지(리니어)를 한두 겹씩 붙여 만든다. 골심지는 주로 쓰다 버린 파지를 갖고 만드는 데 최근 이 파지가 가격이 급등해 골판지원지인 골심지 가격마저 올랐다. 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당 30만원이던 골

심지 가격은 현재 46만원으로 50% 넘게 치솟은 상태다. 오진수 골판지조합 이사장은 "최근 환율 급등으로 달러 가치가 비싸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부 수입해 오면 파지 공급이 거의 중단됐고 국내에서 생산되면 파지도 동남아시아 등으로 대거 빠져나가 국내 공급량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골심지 가격은 급등했지만 골판지포장 박스 납품가격은 오르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해 가혹하다고 있다. 이 이사장은 "골심지를 만든 골판지원지 가격이 지난해 6월 평균 500원이었지만 골심지 가격 인상으로 현재 680원이 이르다"며 "여기에 골판지포장 업체 일가공비 150~200원을 더하면 납품가격은 최소 800원대 중반을 넘어야 하지만 현재 600원으로 원자재 가격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골판지포장 박스는 시공업체나 자동차 부품업체 등을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다. 오 이사장은 "실용생산 대기업인 C업체의 경우 지난해 9월 골심지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때부터 골판지포장 업체와 납품단가 인상을 논의해 왔지만 단 한 번도 인상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C업체가 발주량이 많은 데다 단금결제할 때 등 일부 유리한 측면이 있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납품을 계속하고 있지만 단가 인상 없이는 더 이상 거래를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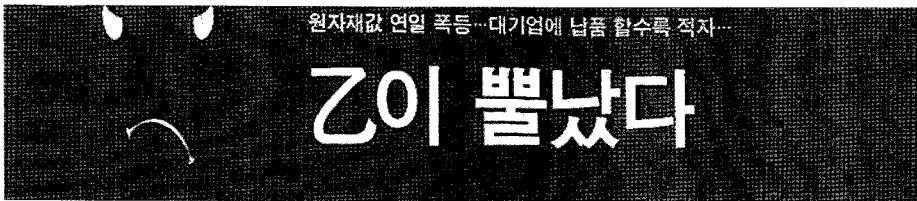
조합은 현재 C업체 등 대기업에 납품단가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79일까지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이며 급격한 가격저가위협책에도 하도급 대금 조정을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서진우기자

골판지포장업계 현황 신문기사

헤럴드 경제

heraldbiz.com

2010년 4월 28일 수요일 | 15



물Z이 뿔났다. 각종 원자재값이 급등하면서 대기업 납품업체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저러기 쫓길까 밥 못할 속병을 앓던 중소기업이 급기야 납품단가 인상률 요구하고 나섰다. 공장을 불령수표 작자가 늘어난다는 발만이 공장거래위원회와 신고로까지 변질 전망이다. 원자재값 상승을 계기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이라는 꾀많은 난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납품업체와 빈발한 산업 분야를 떠나돌며 터져나오고 있다. 펄프, 식고강판, 공심지 등 각종 원자재값이 연이어 상승하면서 그 여파가 납품 중소기업 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28일 한국재판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재이나 통조림 등을 생산해 대기업 등에 납품하는 재판업계 중소기업은 납품단가기 현실화되지 않으면 5월 중 납품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적도강판의 원재료인 BP 가격이 지난 3월 1당 8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됐고 최근 다시 13만원 추가 인상됐다'며 '다들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해 판매 저자락가로 생산하고 있지만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5월 초순께 경영난으로 더 이상 생산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원자재값이 연이어 납땜했지만 납품 단가는 3월 이후 계속 동결돼 왔다.

이러 납품업체의 적자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관계자는 '적자를 감안하려면 우선 버티보자는 식으로 다들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들 협회와 연대해 공동으로 납품단기 현실화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 재판업체 관계자는 '일제시대 손사보다 더 무서운 게 대기업의 구매담당이사'라며 '불

**"일제시대보다 더 무서운 게
대기업 구매담당이사"
계관·골판지업계 불만 고조**

**단가인상 지연엔 납품중단 불사
'대중기 상생' 말뿐...불신 심화
공정위에 해당 대기업 신고 검토**

만을 판매보의 하면 거래를 끊겠다는 식으로 나오니 믿어 있어도 믿을 못하는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측은 '골판지 원자재원심지 가격이 지난해 중순부터 크게 올랐는데 대기업이 지금까지 납품단가를 전혀 올려주지 않아 공정위에 해당 대기업을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지난 6월 공심지 가격은 1당 30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46만원으로 50% 이상 올랐다. 펄프지로는 만든 골판지상자 가격

역시 같은 기간 500원에서 680원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골판지를 납품받는 A기업의 경우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납품가격을 한 차례도 올리지 않는 등 원자재 인상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우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전무 이사는 '현재 납품단가 수준으로는 원자재 값 조차 받아들여기가 어렵지만 대기업과 거래가 끊길까봐 해당 중소기업들이 불만조차 제대로 털어놓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합은 A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할 현실에 맞게 조정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시정이 되지 않으면 납품을 중단하는 한편 공장거래위원회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또 계관, 연포장 등 재판업체도 납품단기 인상에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납품단기 불를려서고 곱들이 불거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신은 더 깊어지고 있다. 한국재판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업계 전반에 대기업을 상대로 대항하는 건 계관으로 바뀌지까지는 허탈할이 행해져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해마다 내지 못하는 회원사가 부지기수'라며 '협업한 회원 쫓기도 어려워나 조합을 그냥 앞에서는 밀까지 나오고 있다'고 털어놨다.

김상수 기자/dtcw@heraldm.com

골판지포장업계 현황 신문기사

한국경제

2010년 4월 28일 목요일
1121K5/1112/1011
www.kjnews.com

취재여록 골판지업계의 3중고

임기훈
과학채증기부 기자
shogger@hankyung.com



“펄프 폐지값은 치솟는데 골판지상자값은 1년 전 그대로입니다. 손실은 늘어나는데 속수무책입니다.”

골판지상자를 만드는 A사의 B대표(44)는 “작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매달 2억원 이상씩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 납품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3개월 이상 버티기 힘들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골판지업체들이 펄프 가격 급등과 폐지 품귀 현상 때문에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납품단가를 올려받지 못해 발을 동동구르고 있다. 골판지업계는 이를 ‘3중고의 닻’이라고 부른다.

현재 골판지업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원자재값 폭등이다. 골판지 원료인 골심지는 펄프와 폐지로 만드는데 현재 펄프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이상 뛰 1당 820달러를 넘어섰다. 여기에 폐지가격도 예년에 비해 10% 이상 늘어난 중국수출로 인해 올초 kg당 120원에서 최근에는 160원까지 약 33% 상승했다.

이 때문에 골심지 가격은 지난해 6월

1당 30만원에서 이달에는 46만원 선으로 뛰어올랐고, 결국 골판지상자(사과상자 크기) 1개의 적정가격은 500원에서 680원으로 36%가량 급등했다.

이처럼 원가부담은 커졌지만 납품단가는 제자리 걸음이다. 현재 일부 골판지업체들이 식품이나 식자재 전문 대기업에 납품하는 상자값은 개당 500원 수준으로 지난해 4월 수준이다. 참다못한 골판지업계는 지난 주말 한국골판지포장조합을 통해 대기업들에 단가인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김진무 골판지포장조합 전무는 “원가비중이 8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개당 650원이 돼야 손해를 안 보는데 현재로서는 개당 약 150원의 손해가 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기업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식품 및 식자재 전문 대기업 B사의 한 관계자는 “원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단가를 올려줘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며 “지자체부터 원가절감에 화두가 되는 마당에 단 몇 달 만에 납품가격을 30% 넘게 올려주게 되면 우리에게도 상당한 타격이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자재값 양동이 대기업과 납품기업 간 예기치 않았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양측 모두 ‘상생’이라는 화두를 잘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골판지포장업계 현황 신문기사

서울경제

THE SEOUL ECONOMIC DAILY

A1 제13362호 45판 2010년 4월 26일 월요일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납품단가를 둘러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골판지 업계는 대기업에서 단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오는 28일부터 납품중단도 불사하겠다고 나서 지난 2008년의 원자재 파동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大-中企 납품가 갈등 고조 원자재 파동 재연 우려

원자재 가격 급등따라
골판지·주물등 곳곳 마찰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지·철강 등 국제 원자재 값이 줄줄이 올라 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가운데 골판지·주물·제관 등 산업계 곳곳에서 적정단가를 놓고 첨예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골판지 업계는 대기업에서 납품 단가를 올려주지 않는다며 28일부터 골판지 상자 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정식으로 신청하는 등 실행행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골판지 업계는 원재료 가격이 지난해 9월 이후 50%나 치솟았지만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으며 제관·유리 등 다른 업계와도 연대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조림이나 음료캔 등을 만드는 제관 업체도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인상하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정상적인 제품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철관에 주석을 입힌 석판 가격은 지난 3월 톤당 7만 원이나 올라 가격 인상을 계속 떠안아야 된다면 '공급중단'이 아니라 '공급 불가능'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08년 공급중단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던 주물 업계는 현재 고철 가격이 kg 당 580원으로 최근 1년 사이에 60%나 뛰었지만 납품 가격을 전혀 올리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경림기자 klsin@sed.co.kr

아시아경제

[산업] 中企골판지업계-

대기업 납품價 싸움 번지나

기사입력 2010.04.26 06:53 최종수정 2010.04.26 06:53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최근 골판지원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골판지업계와 대기업간 납품단가 싸움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상상협력 분위기도 냉랭해질 것이란 우려다. 26일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골판지상자 원료인 골판지원지 가격이 지난해 9월 20%, 올해 3월에는 30% 인상되는 등 총 50%의 인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 C사에 납품하는 4곳의 골판지포장기업은 가격을 인상해 줄 것을 수차례 걸쳐 요구했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골판지상자에서 원지 점유비율 약 60%로 가정한다면 약 30%의 골판지상자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현재 대기업에 납품되는 골판지상자 가격은 원자재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하도급거래 관례상 거래지속을 위해 원사업자에게 적극적 의사표현이 어려운 납품업체 입장을 헤아려 납품대금을 조정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상협력의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하지만 C사의 경우 지난해 9월 1차 인상 시에 가격을 인상해주지 않았고 지난달에도 역시 거절하면서 거래단절, 장기계약 등으로 회유하고 있다는 것이 협동조합측 설명이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중소납품업체들은 C사의 많은 발주량과 현금결제, 안정성 등의 이점 때문에 최악

의 조건에도 거래를 하고 있다"며 "손해를 감수하고도 거래가 지속되기를 바라고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협동조합측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먼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 위반행위신고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공급중단 등의 행동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대기업에 대해 제관, 연포장 등 타포장소재업계와 중소기업계간 연대를 통한 공동 대응을 모색할 방침이다. 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차원에서 조만간 대응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파이낸셜 뉴스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시각 First-Class 경제신문

2010-04-23 16:51:43

골판지업계 “단가 안올리면 공급중단”

2010-04-23 16:51:43

골판지상자 공급가격을 두고 골판지업계와 대기업이 갈등을 빚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 골판지업체들은 지난 2월부터 대기업 C사에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단가 인상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C사는 기존 공급가격을 고수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골판지 원재료인 골심지 가격은 지난해 6월 t당 30만원에서 최근까지 46만원으로 50% 이상 치솟았고 이에 따라 골판지상자(사과상자 크기 기준) 가격은

500원에서 680원으로 36% 급등했다. 하지만 골판지 업체들이 C사에 공급하는 가격은 작년 6월 수준인 500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납품업체들은 개별적으로 단가인상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지난 20일에는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 C사에 단가인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조합의 김진무 전무이사는 "일부 대기업자의 경우 납품단가연동 반영을 거절하고 있어 현재 공급되는 골판지상자 가격은 원자재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원지가격 상승과 국제펄프가격 폭등으로 원가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늦어도 이달부터는 공급단가가 30%가량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도 검토하겠다"며 "C사에 공급 중인 제관(강통), 연포장 등 다른 포장소재업체 및 중소기업들과 연대해 공급중단 등 단체행동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기자

※ 저작권자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hosun.com

종합 [현장르포] 뛰는 원자재... '산업계 갈등' 확산

이성훈 기자 inout@chosun.com 기자

전재호 조선경제이 기자 jeon@chosun.com 기자

입력 : 2010.04.28 02:58

[현장르포] 철근값 올해 20% 올리자 건설업계 "우리 죽일셈이냐"

니켈업체 공급량 조절하자 도금업체들 반발하고 나서... 하반기까지 갈등 계속될듯

요즘 A 건설사 자재구매팀에는 '비상'이 걸렸다. 건

설 현장에 공급할 철근을 구하기 위해 철근 수입업체나 대리점 문을 매일 드나들고 있는 것. 이는 대형 철강업체들이 철근 공급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

철강업체들은 원료인 고철가격이 급등해 철근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가격 인상에 나섰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가 가격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자 이달 19일부터 철근 공급을 완전히 중단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마다 15~30일 정도의 재고물량으로 겨우 버티고 있지만 일주일 이후부터 철근이 없어 공사를 중단하는 곳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청원에 있는 K제지 구매팀 김모 과장은 수도권 일대 폐지 수집상을 도는 게 하루 일과다. 작년 하반기부터 소비 회복과 함께 포장용 골판지 수요가 늘자 원료인 폐지가격이 경총 뛰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이마저도 공급이 달려 폐지 확보 전쟁을 매일 치르고 있다. 김 과장은 "가격이 더 오른다는 기대에 고물상들이 좀처럼 폐지를 풀지 않는다"며 "사정을 해서 간신히 1~2씩 받아낸다"고 말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공급가격과 물량을 둘러싸고 산업계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원자재 공급자는 국제 시세가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수요자는 과도한 가격 상승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철근가격 놓고 철강과 건설사 충돌

원자재를 둘러싼 갈등은 철강업체와 건설업체 사이에서 가장 먼저 표출됐다. 올 들어 철근가격은 모두 세 차례 올랐다. 올해 초 1t당 67만6000원선(일반 13mm 기준)이던 철근값은 2월 말 72만6000원, 4월 7만6000원으로 오른 데 이어 다음달부터는 81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석 달이 채 안 돼 20% 넘게 오른 것이다. 철강업체 관계자는 "원료인 고철이 연초 대비 130% 올랐고, 유연탄 가격도 55%나 올랐다"며 "국

제 시세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건설업체는 가격 상승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심각한 경영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3.3㎡(1평) 당 건축비를 4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철근값이 t당 10만원 상승하면 건축비는 5만원 정도 오른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를 감안하면 이를 분양가에 반영하기도 쉽지 않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최근 철근값 상승으로 연간 300억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며 "분양가에 반영할 수도 없어 고스란히 손실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골판지·도금·주물 등으로 갈등 확산

'원자재 갈등'은 다른 업종으로 퍼지고 있다. 최근 한국골판지공업협동조합은 포장용 골판지상자 원료가격이 작년 하반기 이후 50% 올랐으며 주요 구매자인 대기업들에 납품가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요구가 거절되자 이달 26일 골판지조합은 대기업이 납품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도금업체들은 주원료인 니켈 생산업체들이 향후 가격 상승을 염두에 두고 공급물량을 조절하자 반발하고 있다. 2년 전 집단적으로 납품 거부운동을 벌였던 주물업체들도 납품가 인상을 요구하며 다시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이다.

김화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납품가격을 조절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올 하반기까지 납품가를 둘러싼 산업계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대기업 갈등 확산 ...

"거래단절 협박 여전"

2010-04-27 오전 11:40:59 게재

원자재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납품단가 현실화를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생산원가가 높아지자 대기업에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지, 구리, 철, 플라스틱, 고무, 동 등 대부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납품단가 인상 요구는 중소기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어 우려된다.

최근 4개 골판지포장 중소기업은 납품처인 대기업 C사에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골판지상자가격 인상을 수차례 걸쳐 요구했다. 골판지상자 원료인 골판지원지가격이 지난해 9월 20%, 올해 3월 30% 인상된데 따른 것이다. C사는 납품단가 인상을 거절했다. 오히려 C사는 납품 중소기업들에게 거래단절과 장기계약 등 협박과 회유를 했다.

이에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 위반행위신고를 검토할 예정이다.

탄소강을 주요 원자재로 사용하는 단조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은 탄소강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대기업에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했다.

탄소강가격은 지난 5개월간 13.2% 상승했지만 납품단가는 전혀 오르지 않았다. 지난해 8월 31일 톤당 91만원이던 탄소강가격은 두 차례 인상을 거쳐 4월 들어 103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박권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전무는 "간신히 금융위기를 벗어난 단조업체들이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원자재값 급등 ... 납품단가 제자리

또다시 경영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납품단가를 인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물업계도 원재료인 고철과 선철가격이 2008년도 수준으로 급등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올 1월초 kg당 400원대이던 고철가격은 4월 현재 550원으로 38% 올랐다. 포스코 등 철강업계의 가격 인상 여파로 선철도 55만원에서 70만원으로 27% 인상됐다.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허만형 전무는 “최근 경기회복으로 일거리가 늘었지만 원자재값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 못해 오히려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2년 전 주물 납품거부 파동 같은 사례가 다시 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천연고무가격도 지난해 이맘때보다 70% 이상 뛰고, 합성고무 원가도 지난해 말보다 15% 상승해 모처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구리가격도 1년새 70% 넘게 뛰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도 갑작스레 15% 가까이 폭등했다. 따라서 전선생산업체, 인쇄회로기판(PCB)업체 등도 걱정이 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류길상 기업협력팀장은 “대부분 원자재가격이 인상되고 있어 납품단가 인상 요구는 중소기업계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됐다”며 “적정 납품단가로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상생협력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